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행하는 교회”

교단 총회 2017년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



조남영 목사
교단 총회장

교단 총회는 지난 5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에서 2017년도 시무예배 및 신년하례식을 갖고 환란스러운 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힘을 다짐하는 한편, 신년 인사를 나누며 서로를 축복했다. 이날 시무예배는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증경총회장 김용덕 목사의 대표기도 부총회장 김갑신목사의 성경봉독, 정책위원장 조용목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단 3:16-18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교단이 존립하는 의미와 우리 교단의 교리와 신조를 강조하며 “철저하게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교회들이 모인 교단. 거짓과 불의를 배격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성경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생안정을 위해, ‘교단발전과 개교회부흥을 위해’, ‘성령충만한 사역을 위해’ 증경총회장 김인찬 목사, 전직 부총회장 정부용 목사, 증경지방회장 임용재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를 인도했다.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의 헌금기도, 사회자의 광고, 증경총회장 김갑신목사의 축도로 시무예배를 모두 마치고 곧바로 총회장 조남영 목사 인도로 이어진 신년하례식에서는 교단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헌신해준 회원 서로를 격려하고 참석자들은 선후배 동역자들에게 서로 뜨거운 박수로 격려의 마음을 전하고 새해 덕담을 주고받았다.



설교
조용목 목사
정책위원장

축도
김갑신 목사
증경총회장

대표기도
김용덕 목사
증경총회장

특별기도1
김인찬 목사
증경총회장

특별기도2
정부용 목사
전 부총회장

성경봉독
김갑신 목사
부총회장

특별기도3
임용재 목사
전 경기지방회장

헌금기도
최형택 목사
총무



제65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

제65차 총회 제4회 실행위원회가 지난 1월 5일 (목) 오후 1시, 총회본부에서 열렸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총회장 조남영 목사 주재로 진행된 가운데 서기 홍현철 목사의 회원점명, 개회선

언, 전 회의록 낭독, 총무보고가 이어졌다.

총무 최형택 목사는 총무보고에서 전국시모연합회 단합대회, WCC반대 및 동성애반대 집회 참석, 나라를 위한 기도회, 부흥사회 신년 기도회 및 연수교육 세미나, 총회목대원 계절학기, 총회신학교 목대원 졸업예배 등의 내용이 보고되었으며 교계업무사항으로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대표회장 취임감사예배 등의 업무 내용이 보고되었다.

이어재무 조원채 목사의 수입보고, 회계 안재홍 목사의 지출보고가 있었으며 교단발전기금 납부 현황보고, 교회기금 청원, 교역자기금 청원, 교역자복지청원, 교회주소변경, 교회명칭변경, 교역지후지 청원, 교역자 은퇴 보고 등 각종 결의사항 등이 처리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운 명령들’



조용목 목사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신 28:1, 2)

하나님의 명령에는 대제로 약속이 부기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인생들이 원하고 필요한 것을 충족케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을 큰 즐거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며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믿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결과를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보배롭고 큰 복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으면 얻고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언약에 의거하여 공정적이고 소망적이며 낙관적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둘째는, ‘구하라’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될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에 관련된 약속, 성령의 은사를 얻게 되는 약속,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약속이 있습니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아무런 자주 구하고 많은 것을 구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만 탐심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간구하는 것은 성도

의 의무이며 특권이고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취하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최선의 응답을 하십니다.

셋째는, ‘말하라’입니다.

열두 명의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피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 중 질레다수인 열 명이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통곡하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법이라,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고 외쳤습니다. 열 정탐꾼과 백성들의 부정적이고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언약에 의거해서 믿음을 가지면 주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그 언약하신 말씀에 의거해서 구하면 “그러하면 주시리라” 하신 말씀이 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그 언약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말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들으신 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라”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와진리교회)

자매부대 위문, 각종 청원 건 등 다뤄



제65차 총회 제9회 임원회

교단 총회(총회장 조남영 목사) 제65차 총회 제9회 임원회가 지난 1월 5일(목) 교단 시무예배 후 총회본부에서 열려 각종 행사와 청원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종 회무를 은혜 가운데 처리했다.

의장 조남영 목사 주재로 열린 회의는 서기 홍현철

목사의 회원점명, 총회장 조남영 목사의 개회선언 후 보고사항이 이어졌다.

보고사항에서 교단 총무 최형택 목사는 교단업무보고사항으로 각종 교단 행사와 기도회, 자매부대 위문 건 등을 결의하고 새해 총회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고 임원진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했다.

총회신학교 후원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후원회

계좌번호 농협 302-0928-2103-51 / 예금주 임종달

‘국가안보와 교회를 위한 바른 시국관’ 주제 특강

부흥사회 2017 신년모임, 산간벽지 농어촌·도시 미자립교회 자비량부흥성회 지원



신재영 목사
부흥사회장

교단 부흥사회(회장 신재영 목사)는 지난 1월 17일(화) 오전 10시 30분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에서 임·회원 신년모임을 가졌다.

1부에는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시국 상황에서 부흥사회로서 국가안보와 교회를 위해 바른 시국관을 바탕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을 주제로 교단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의 특강이 있었다.

조 목사는 고전 2:13 말씀을 본문으로 한 말씀증거를 통해 “부흥사들이 영적인 지도자들로서 신령한 영감으로 무장하여 한국의 혼탁한 현실을 잘 분별하여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2부 임·회원 모임에서 신재영 회장은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흥사회의 조직을 새롭게 정비하여 효



율적이고 강력한 조직으로 정예화시켰고 앞으로 더욱 역동적인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제시하는 시간도 가졌다.

또한 부흥사회 회칙을 정비하여 부흥사회의 임·회원들에게 확실한 소속감을 갖게 해주었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에 대해 잘 숙지하여서 사명자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를 당부했으며 또한 부흥사회에서는 2016년도에 산간벽지와 농어촌 및 도시미지립 교회들을 위한 자비량 부흥성회를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했고 부흥사들의 자질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세미나도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부흥사회 소속 회원교회 상호 간 왕성한 강단교류를 통한 개교회의 성장과 부흥사들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대폭 높여가기로 결의했다.



미스바대각성 구국기도회 애국대회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 위해 뜨겁게 기도

회개와 사랑의 실천을 위한 미스바대각성 구국기도회 및 애국대회가 지난 1월 7일(토) 오후 2시, 시청 앞 광장에서 열려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대회는 대회장 신신목 목사(사한기 지협 대표회장)의 대회선포를 시작으로 애국가 제창, 한창영 목사(한기지협 공동회장)의 대표기도, 김진호 목사(전 기감 감독회장)·김수을 목사(경기총 상임회장)의 말씀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김진호 목사는 예 4:15~17 말씀을 본문으로 한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모두가 태극기를 들고 외치고 있는 것도 모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또 “일제의 압박과 6.25전쟁 등 민족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간져 주셔서 이 나라를 민주와 자유의 나라로 세워주셨다”고 말하고, “오늘 이 자리 위기에

처해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구국기도회는 계속해 참석자들이 합심기도, 특별기도를 가진 후 권병기 목사(한국장로교연합회 증경공동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 3월 2일 개최

여야와 진보 보수를 떠나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국회조찬기도회(회장 홍종문)와 국가조찬기도회(회장 채익송) 회장단과 임원진 기도회 및 간담회가 지난 1월 2일(월) 오후 3시에 여의도 한 식당에서 현 시국 가운데 ‘나라의 안정과 제49회 국가조찬기도회 준비’라는 주제 아래 긴급하게 열렸다.

국회조찬기도회의 여야 의원들과 국가조찬기도회의 회장단 전원이 참석하여 기도한 후 2017년 제49회 연례 국가조찬기도회의 준비를 위해 장시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 2017년 3월 2일(목) 코엑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조찬기도회의 홍종문 회장과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여야와 진보보수를 떠나 기도해야 한다.”며 외부적 여건과 관계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기도하자고 호소했다.

채익송 국가조찬기도회 회장 역시 “오늘 초청에 응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다. 인간이 안 된다고 포기할만한 위기의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하게 역



사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기도밖에 없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우리는 조국의 안보와 경제, 주변의 눈물 흘리며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나부터 가슴을 찢고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민족의 이품을 나의 것”으로 알고 “함바음으로 화개하고 기도하자”며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기도회 및 간담회에는 홍종문 회장과 김진표 부회장, 이재이, 장정숙, 박홍근 국회의원 등 국회조찬기도회 임원과 지도위원 양성전 목사, 그리고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채익송 회장, 무상달 수석부회장 및 박래창, 이광자, 강국창, 이배용, 권오형 부회장 전원과 정균양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한편 이후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제4회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 예배·축하행사

자랑스런 원로목회자 대상에 림인식, 피종진, 김정웅 목사 수상



제4회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 축하예배 및 축하행사가 지난 1월 6일(금) 서울AW 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에서 8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예배는 한국교회 원로목회자의 날 실행이사회와 한국기독교교원로목회자재단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한국기독교연로재단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원로 목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국기독교교원로목회자재단 이사장 임원순 목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원로가 된 것은 능력이 다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혼장처럼 가슴에 붙어있는 명예도 아니며 높은 자리에 앉은 상좌도 아닙니다.”라며 이어 “원로는 저 높은 곳을 향한 새로운 출발이며 새로운 사명의 부름입니다. 주님 부르심 그 날까지 달려나가기야 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원로목회자분들은 후세대들에게

꼭 내가 닮고 싶은, 존경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자랑스런 원로목회자 대상 수상식’도 진행됐다. 심사위원회 위원장 김순권 목사는 “이 상은 그동안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노고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상이다”라고 말하고 이어 “평생 목회와 선교사역에 전념하다가 은퇴한 총성 되고 모범 된 원로목사를 선정하여 위로 격려하며 후진들에게 사명감과 선교정신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정했다”라고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수상자로 선정된 원로목회자는 세계선교대상에 피종진 원로목사(삼서울중앙교회), 목회자대상에 림인식 원로목사(노광진교회), 농어촌선교대상에 김정웅 원로목사(울릉도석포교회)가 각각 선정됐다.

‘세계선교대상’을 수상한 피종진 원로목사는 20대 후반부터 해외교회 1천여 회, 국내교회 6천여 회의 부흥집회를 인도하며 세계선교에 모범이 되고 아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교연 바수위 10여 개 주요인사 이단성 조사한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이 이단으로 규정한 인사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교연) 바른신앙수호위원회(위원장 황인찬 목사, 이하 바수위)가 예정 개혁 총회에 소속된 류광수 목사를 비롯하여 한기총 소속 교단 등 10여 개 교단의 주요 인사들의 이단성을 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11일(수) 한교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전한 바수위 위원장 황인찬 목사는 구체적으로 그 대상자를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조사·연구대상에 예수교대한감리회 웨슬레 총회와 예정개혁 총회의 류광수 목사 등 10여 개 교단 주요 인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밝힌 황 위원장은 “회원 교단들을 위하고, 한기총과의 하나

됨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

예총연 2017년 신년하례예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다짐

(사)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연합회(대표회장 유영섭 목사)는 지난 1월 5일(목) 오전 11시, 여전도회관 김마리아홀에서 2017년 신년하례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하례예배는 상임회장 오세택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권용태 목사의 기도, 상임총무 홍종실 목사의 성경봉독, 기교협 및 신학협 임원 일동의 특송, 이장자 이순주 목사



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이순주 목사는 사 42:1~4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고 말하고, “더러운 어려움이 닥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승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또 특별기도시간을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서기노영배 목사가,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하여’ 감사 전지희 목사가, 예총연과 28개 총회와 단체를 위하여 총무 남상봉 목사가, ‘기독교교회제도습합기협회를 위하여’ 기교협 총무 김경호 목사가, 신학협회를 위하여 신학협 부회장 임윤임 목사가 각각 기도를 인도했다.

신년하례...새해 나부터 회개와 헌신 앞장

사)개혁교단협, 사)한국개신교단협, 사)세계개혁교회연 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이사장 양정섭 목사), 사)한국개신교단협(대표회장 박형렬 목사) 사)세계개혁교회연(총재 김권현 목사,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 3개 단체 연합 신년하례연합예배가 지난 1월 12일(목) 오전 11시, 여전도회관 루이스기념관에서 기립교단의 총회장, 총무와 임원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드려져 새해에도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노종관 목사의 사회로 시작

하여 김권현 목사의 기도, 서경숙 목사의 성경봉독(신 28:1~14), 개혁중앙단의 찬양과 김병설 목사의 색소폰연주에 이어 사)한국개신교단협 대표회장 박형렬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박 목사는 “종교개혁이 소망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오늘날 사이비가 나라와 개인을 망치고 있다”고 전제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3개 단체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3대 정신으

로 무장 선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영역을 쫓아 이단과 사이비를 배격하고 혼합주의적 세계관을 분별하여 대처하며 세계의 2017년을 대망의 개혁정신으로 전진하며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서 변절되지 말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대역사의 뜻을 이루어 가는 우리 3개 단체가 앞장서서 선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한다”고 선포했다.

이어서 특별기도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애장기도총회 총회장 김성환 목사, 3개 단체인 사단법인 한기협, 세교연, 한기협발전을 위하여 개혁교단협 이사 임정래 목사,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하여 세계개혁교회연 대표회장 최옥석 목사가 주재할 기도를 인도한 후 3개 단체장의 인사말씀을 애장 개혁총회 총회장 강희준 목사가 전하고 광고한 후, 사)개혁교단협 이사장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신년하례연합예배를 은혜 가운데 성대하게 마쳤다.



자선냄비, 전년보다 많은 77억 모금

탄핵정국에서도 온정의 손길 이어져

한국기독교(사령관 김필수) 자선냄비의 거리모금이 지난해 12월 31일 종료됐다.

구세군에 따르면 이번 자선냄비 집중모금 기간(2016년 11월 14일~12월 31일) 동안 모금된 성금은 작년 72억 3천만 원보다 7.2%(약 5억 1천만 원) 증가한 약 77억 4천만 원으로 집계됐다.

구세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모금 기간 불어 닥친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는 자선냄비 거리모금에도 영향을 미쳐 2015년에 비해 약간 저조한 모습을 보였으나, 기업과 단체의 온정이 모여 전체적인 모금은 다소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자선냄비 거리모금 기간(2016년 12월 1일~12월 31일)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로 자선냄비 역시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했지만, 그럼에도 자선냄비를 신뢰해주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성금은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소외계층을 돌보는 일에 두루 쓰일 예정이다.



이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기초 생계 및 건강 증진 사업, 청소년 보육과 양육 및 환경 개선 사업, 미혼모 돌봄과 위기 여성 보호 및 저립 사업, 지역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등이다.

구세군은 “거리모금은 종료됐으나, 온라인이나 전화(1600-0939)를 통한 성금 접수는 계속된다”며 “기업모금, 정기후원, SNS 모금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통한 나눔은 연중 이어진다”고 밝혔다.

예장연합장신, 신년감사예배 드려

설교집 발행 등 교단 발전책 논의

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장신)총회(총회장 송기호 목사)는 지난 1월 2일(월) 오전 11시, 동 총회 강당에서 2017년 신년감사예배를 드리고 신하 지 교회와 총회발전을 위한 합심기도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부총회장 임선자 목사 사회

로 부총회장 이순에 목사의 기도, 신학노회장 오영순 목사의 성경봉독, 부총회장 이승재 목사의 막 8:22~26 말씀을 본문으로 “눈을 뜨게 하는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장 송기호 목사는 신년보고를 급년 교단정상을 위한 설교집 발행, 세미나

개회 등 2017년도 각종 사업을 발표했다. 예배는 계속해 총회서기 최명복 목사의 헌금기도, 사회자의 광고 후 총회장 송기호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총회는 신년감사예배를 마친 후 총대원들은 간담회를 갖고 교단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충성된 일꾼 되어 사명 감당하길

부산지방회

부산지방회(회장 홍현철 목사)는 지난 3일(화) 오전 11시, 갈릴리교회(담임 정영진 목사)에서 신년 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예배는 총무 한순남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회계 김태주 목사(순복음우리교회)의 찬양인도, 부회장 조병희 목사(기장순복음교회)의 대표기도, 성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유 목사는 요삼 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 영혼이 잘되고 법사에 잘되며 건강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했다.



이어 회계 김태주 목사(순복음우리교회)의 헌금기도, 성경총회장 유봉수 목사(은혜와사랑의교회)의 축도로 신년하례 예배를 모두 마쳤다.

순복음의금교회 은퇴 및 취임 감사예배

호남지방회

호남지방회(회장 김장구 목사)는 지난 3일(화) 오후 3시, 전남 신안군 암해읍에 위치한 순복음의금교회에서 김우만 목사 은퇴 및 김순덕 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서세드로 목사의 사회로 부회장 김성호 목사(순복음삼김의교회)의 대표기도, 서기 민순복 목사의 성경봉독, 김성호 목사의 특송, 지방회장 김장구 목사의 설교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행 10:38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역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성령의 도우와 역사 속에 살아가며 성령 충만한 사역자들이 될 것"을 당부했다.

이어 38년간 근속 시무하며 헌신적으로 목회자의 사명을 다한 김우만 목사를 은퇴 목사로 추대하며 순복음의금교회의 은퇴 목사가 된 것을 공포하고 은퇴패를 수여했다.



이후 성경회장 조남연 목사의 권면, 성경회장 유영욱 목사의 축사, 김순덕 목사(순복음의금교회)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복음의 능력을 담대히 전하는 한해 되길

광주지방회

광주지방회(회장 김양인 목사)는 지난 10

일(화) 오전 11시 순복음공산목장교회(담임 김정식 목사)에서 2017년 신년하례 및 기도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최정식 목사(순복

음목장교회)의 사회로 부회장 장영기 목사(순복음행함교회)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양인 목사(복음제일교회)의 설교, 재무 조은주 목사(순복음참좋은교회)의 헌금기도, 성경회장 주덕영 목사(나주순복음교회)의 축도순으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복음은 구원에 관한 메시지이다.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전해야 한다."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했다. 또 "복음을 자랑하고 담대히 전해야 한다."면서 "복음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역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성경회장 조원재 목사(순복음풍암교회)가 '국정 안정과 총회를 위해', 부회장 장영기 목사(순복음행함교회)가 '지방회와 회원교회를 위해' 각각 특별기도했으며, 이어 지방회 성경회장과 임원, 지방회원들 간의 신년하례회를 갖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깨어 기도하는 알곡 신앙인이 될 것 다짐

전북서지방회

전북서지방회(회장 김중곤 목사)는 지난 9일(월) 고창 순복음심원교회(담임 박운석 목사)에서 신년 하례회 및 월례회를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양현철 목사의 사회로 회계 심해원 목사의 성경봉독, 지방회장 김중곤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마 13:24-30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가리지않을까?'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악한 자의 아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심판받을 것에 대비하는 알곡이 되자."고 강조했다.

이어 서기 김훈배 목사의 헌금기도, 회장 김중곤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에서는 양정석 목사의 사회로 지방회 서기 미련한 풍성한 오찬을 함께하며 신년 하례회 및 월례회의 모든 순서를 마쳤다.

새해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회 다짐

경기중앙지방회

경기중앙지방회(회장 임홍택 목사)는 지난 12일(목) 오전 11시, 은혜와승리교회(담임 이은승 목사)에서 2017년 시무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총무 윤두환 목사(호평순복음교회)의 사회로 시작되어 재무 이봉기 목사(하리울교회)의 찬양인도, 지방회장 임홍택 목사(순복음제일교회)의 대표기도, 교단 총회장 조남영 목사(기평순복음교회)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히 11:1-6 말씀을 본문으로 '믿음으로 삽시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2017년은 믿음으로 소망을 두고 살 것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목회자가 될 것, 믿음으로 날마다 변화된 삶과 목회를 하자"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축복했다.



이어 회계 김순형 목사(아침빛순복음교회)의 헌금기도와 성경회장 윤장현 목사(송전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 은혜외승리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오찬을 함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2017 시무예배로 은혜로운 새 출발 다짐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이성석 목사)는 지난 9일(월) 오전 11시, 경주시 외동읍에 위치한 한소망교회(담임 박기만 목사)에서 새해맞이 시무예배를 드리고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며 2017년 새 소망으로 출발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예배는 총무 권점식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서기 신홍섭 목사의 기도, 지방회장 이성석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이 목사는 사 65:17-25 말씀을 본문으로 '출발선에 서서'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시며 첫째,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시고 둘째, 모든 삶의 지리에 함께하시며 인도하시고 셋째, 넘치



는 회복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며 은혜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어 합심기도 시간을 통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단 발전과 지방회 교회들의 부흥을 위해, 목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고, 한소망교회에서 준비한 디과와 식사를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길

경기남지방회

경기남지방회(회장 김기인 목사)는 지난 10일(화) 안성시 공도읍에 위치한 평강교회(담임 정석현 목사)에서 신년하례회 및 월례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1부 예배는 박흥열 목사(오성사랑교회)의 사회로 김효신 목사(찬양교회)의 대표기도, 정미자 목사(샘교회)의 성경봉독, 목회자 사모일동의 특별찬양에 이어 지방회장 김기인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뱀전 1:1-12 말씀을 본문으로 '어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실한 목회자가 되는 것이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된다."고 전했다.

또 어려운 시국으로 인하여 나라와 교단



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최정용 목사(민음교회)의 헌금기도, 신동숙 목사(임마누엘교회)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2부에서는 이기진 선교사의 해외 선교 소식을 듣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어서 지방회 회부의 시간을 가져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논의했다.

끝으로 인근 식당에서 준비된 오찬을 나누며 올해 지방회 첫 모임을 은혜롭게 가졌다는 신년하례회 및 월례회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 위해 기도

경기북지방회

경기북지방회(회장 김장수 목사)는 지난 17일(화) 오전 11시, 여호수아교회(담임 문찬우 목사)에서 신년하례회를 갖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다.

이날 1부 예배는 총무 이정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부회장 탁정신 목사의 대표기도, 지방회장 김장수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김 목사는 창 28:10-22 말씀을 본문으로 '재해를 사는 자'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다.



2부 월례회는 김장수 목사의 진행으로 시작되어 오세준 목사의 회원점명, 총무 이경진 목사의 총무 및 재무 보고, 오세준 목사의 회계보고를 처리하고 지방회 각 안전에 대하여 토의한 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 생명의 말씀 ■

인간과 인간관계에 조심할 것

(약 2:1-7)

우리가 가져야 할 인간관계는 믿음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되어야 하고,
은혜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김기원 목사

· 장위제일교회 원로목사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전총재

신앙생활은 인간관계를 중요시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바 그 형제를 사랑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요일 4:20)

교회 내에 성도들간의 인간관계는 믿음에 기초한 인간관계여야 합니다.

첫째, 차별대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핵심은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에 맞게 없으면 싫어하고 차별합니다. 인본

주의는 부한 자와 가난한 자들이 있을 때 차별대우합니다.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인간관계는 믿음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되어야 하고 은혜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보시듯이, 우리의 인간관계도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영원한 관계를 갖기 위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수준을 맞추셨습니다.

본문에 외모란 ‘뉘에’, ‘뉘파적’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차별대우처럼 사람을 기본 나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차별 안 하기도 정말 힘들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되어 버리는 것이 차별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믿음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은혜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사랑에 근거한 인간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인간관계 실패는 교회 생활 실패입니다. 인간관계 실패는 신앙생활 실패입니다. 인간관계 실패는 봉사과 사랑의 생활도 실패입니다. 인격의 성숙과 신앙의 성숙은 인간관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할 때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둘째, 차별은 악한것입니다. 죄악입니다.

차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결과입니다. 차별은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차별은 인간의 가치를 차별하는 행위입니다. 차별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택할 때도 보면 믿음을 보셨습니다.

셋째, 차별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지 못한 대표적 증거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편애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이기주의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자기 기준입니다. 편애는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무서운 결과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사랑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관점에서 참된 인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넷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는 인간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간관계에 따른 우리의 행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은 죄로 여기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 모순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이웃과의 잘못된 관계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선민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조심은 인간관계에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자기 소위를 살피고 인간관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 정

조용중 선교사 KWMA 사무총장에



한국 선교를 이끌고 있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사무총장에 글로벌호프 대표 조용중 선교사가 최근 선출됐다. 필리핀 선교사 출신으로 GP선교회 국제대표와 글로벌호프 대표를 역임한 조 사무총장은 “회원단체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한국CBMC, 신년 인사회



한국기독교실업인회는 4일 오전 7시 서울 광진구 웨라톤그랜드워커히호텔에서 신년 인사회를 열고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자”고 다짐했다. 두상달 한국CBMC 중앙회장은 신년사에서 “이제는 모든 회원들이 힘을 합해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새 역사를 쓸 때”라고 도전했다.

이지선 씨 한동대교수 채용



전신 화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던 이지선(39)씨가 한동대학교 상담심리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채용될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졸업한 뒤 고학력 무직자로 지냈다”면서 “많이 부족해서 학생 때 보다 더 많이 공부할 것”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오랜 시간 기도해주고 응원해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신대, 영도캠퍼스 기숙사 준공



고신대(총장 전광식)는 16일 영도캠퍼스 행복기숙사 ‘로템관’ 준공식을 가졌다. 행복기숙사는 연면적 3000평에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1인실 4실(장애우), 2인실 66실 132명, 4인실 152실 608명 등 744명의 수용이 가능하다. 행복기숙사 준공으로 전국의 학생은 물론 장애우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차별금지법을 끌어들이려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 개정안의 실체는?

현재 국회에는 김정재 의원(새누리당)이 지난해 12월 14일 대표 발의(이하 9명이 동참)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 의안번호 4384-이하 ‘일부 개정안’)이 올라와 있다.

원래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할 때,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일부 개정안에서는 이를 더 구체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일부 개정안에서는 ‘남녀’란 말을 ‘성별, 임신 여부, 자녀출산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에 대한 신고나 상담,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차별조항에서도 ‘남녀’ 대신 ‘성별, 임신 여부, 자녀출산계획 등’을 이유로 차별할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라고

한다. 이 일부 개정안의 특색을 찾아보면, 첫째는 차별금지법을 채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녀고용 평등에서 그 대상이 ‘남녀’면 되는데, 이를 굳이 ‘성별’로 함으로,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와 다양한 성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을 인정하는 법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전에는 차별금지법을 모방한 입법 발의가 주로 야당 쪽 의원들이 주를 이뤘는데, 이번에 일부 개정안을 낸 의원들은 모두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것이다.김정재 이철우 조훈현 장병국 강석호 김도읍 곽대훈 정용기 김성원 박병제 의원

최근에 새누리당이 정권없이 분당과 과당을 쥐는 사이에 여당 의원들까지도 개헌 없이 차별금지법을 채용하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 일부 개정안이 동성애를 지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나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여, 잘 지켜지고 있는데, 옥상옥(屋上屋)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옹호하려는 것으로밖에 달리 판단할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은 당연히 폐기되어야 하고,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은 남녀차별 금지를 방자한, 차별금지법 채용의 잘못된 법안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는 법률안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조차도 국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빚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의견 개진만이 이러한 빚나간 행위를 막을 수 있다.

‘열정적 주님 사모 기도’ 출간



홍일권 목사

베스트셀러 ‘5만 번 응답받은 물려의 기도 비밀’ 저자 홍일권 목사가 ‘열정적 주님 사모 기도’를 출간하고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홍 목사는 나라가 예수전하고 교회가 어려운 때 남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먼저 내려놓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겠다는 생각에서 기도본문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도는 쉬운 것 같아도 무척 어려운 영역이다.

저자는 10여 년 전에 <5만 번 응답받은 물려의 기도 비밀>의 기도책을 쓴 이후로 주님과의 일대일 개인적인 친밀한 기도 도서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이번에는 주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루에 한 두 편씩 읽



으며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도문을 써야겠다는 생각하고 ‘열정적 주님 사모 기도’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

홍일권 목사는 종신대 신대원(상담학)을 졸업한 후 가정사역, 가족상담사역, 선교빌더사역 등 20여 년 간 전국 교회를 다니며 집회와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다.

저자 홍일권 목사(박애스타)
12,000원
푸른서울 02)337-7808

Wedding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는 결혼 적령기 크리스천 미혼 남녀가 주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시는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아감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에 신청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출하신 서류 및 개인 정보는 담당자만 볼 수 있고 비밀이 보장되며, 일체의 비용도 없습니다. 본교회 성도는 물론 본교단 산하 교회 성도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안내

- 대 상 : 결혼 적령기 남녀 성도
- 신 청 : ① 센터(안양성전 행복한결혼정보센터)에 직접 신청
② 각 성전 교구장 통해 신청
③ 은혜와진리교회 홈페이지(www.gntc.net) 통해 온라인 신청
- 상담시간 : 매주 주일 오전 11시~오후 6시
매주 수요일 낮 12시~오후 6시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458-5 행복한 결혼정보센터
(☎ 사무실 031-422-3735, 상담소장 010-4377-2842)

기독교문화예술
진단

이상열 목사 // (사)한국기독교문화예술원 이사장,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이사
전 서울예술신학교 학장, 전 바기오예술신학대학교 총장



기독교 예술, 그 지표에 대하여

천년래던 기독교 예술이 근세로 접어들면서 침체 상태에 빠지게 되었던 근본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것은 한바디로 말해서 기독교 예술이 그 방향을 설정하지 못한 데 있다고 보겠다. 인간 스스로가 신으로부터의 도피에서 인간 중심의 자아의 형성 과정으로부터 기독교 예술의 적응은 그것이 교회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 예술은 점차 그 위축을 몸소 감수해야 했다. 그리고 이 위축은 실로 엄청난 것이어서 마침내는 기독교 예술의 사경을 예고하기도 했던 것이다.

그와 반면에 기독교는 빠른 속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급성장으로 따지고 보면 불과 몇 년 전부터이고 이제는 기독교도 그 포화 상태에서 더 이상의 팽창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것같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가 절적인 것 보다는 양적인 숫자를 매우기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도 없지 않다. 그

려나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근본 동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은 교회와 예술의 합일을 적절한 수준으로 이끌어 낼 수 없었다는 데 있다고 본다. 종교와 예술의 적절한 합일은 삶의 표현을 성숙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몇 세기 동안 잃어 버리고 있었다. 솔직하게 말해서 기독교 예술은 교회를 표현하는 수단으로만 전전긍긍했을 뿐이다.

예술에서의 독창성은 교회용 장식으로 탈바꿈했고, 이에 얻은 영감은 성령으로 대신 되어졌다. 빛나게 보이는 것은 교회였다. 교회에 가기만 하면 곧 우리들 삶의 표현을 얻어내는 것 같기만 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반드시 나쁜 결과만을 가져 왔다고는 보지 않는다.

그래도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인류 전체에 골고루 전파되어졌다는 데에는 아무도 이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삶이란 삶의 표현을 통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면 우리의 문화

를 교회가 대신 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예술은 예술로서의 기능이 따로 있는 법이다. 언제나 인류는 종교와 예술의 조화 속에서 새로운 문화를 정립했고, 사람들은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삶을 표현했다.

종교는 개인의 독점물도 아니며 한 집단의 전속물도 아니다. 종교는 만인을 위한 삶의 터전이며 생활공간에 속한다. 그러한 공간 속에서 삶을 즐기는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적 공간 속에서 우리가 더 넓은 세계를 갈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교회는 이런 삶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인가는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외침만으로는 인간들에게 더 이상의 어떤 반응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교회는 보다 진지하게 숙고해 볼 시기가 고 생각되는 것이다.

한국이슬람대책협 창립, 대표에 고정량 목사 선임

국내 이슬람 인구 기하급수적 확산, 한국교회적 대책마련 시급

국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슬람의 위험성에 대해 바로 알리고 이슬람으로부터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를 지키기 위해 한국이슬람대책협회가 창립 되었다.

그동안 WCC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 기독교와 천주교일치 반대 등에 앞장서 왔던 고정량 목사는 이번에는 이슬람대책협회의 대표를 맡아, 한국교회 차원의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짐했다.

한국이슬람대책협의회 창립대회는 지난 1월 12일 (목) 오후 2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제1세미나실에서 대회에 앞서 먼저 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서 예정합동 부총회장 전계현 목사는 “지금 이슬람은 골리앗처럼 진군하고 있다. 막대한 오일머니, 강력한 교리, 무서우리만큼 강한 폭력으로 전 세계에 무섭게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또 “성경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분명히 일어섰던 것처럼 오늘 한국이슬람대책협회가 다윗의 심정으로 나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방법이 칼과 창과 단창이었다. 무기였다. 우리는 다윗의 용기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는 고백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 고정량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동성애 대책에 파를 놓쳤던 한국교회가 이슬람 대책에는 그 중요성을 깨닫고 하루빨리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고 목사는 먼저 “지난 2013년 WCC 총회가



한국을 휩쓸고 간 후, 2015년에는 동성애가 신촌으로 나왔다”면서 “한국교회는 이러한 혼란에 대처를 전혀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지금 한국교회가 동성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는 오랜 시간 몰밭에서 밖으로 나올 준비를 했지만, 한국교회는 방관만 하고 있었다”며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동성애 문제가 그리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우리는 이슬람 대책을 마련코자 창립예배를 드린다. 사실 우리 같은 미천한 사람이 아니라 전 교단적으로 벌써 큰 목소리를 높여야한다”면서 “지금까지 보면 항상 작은 사람들이 나서서 불을 붙여놓으면 이후 자기들이 한다고 여분을 끌고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고 목사는 “우리가 오늘 이슬람 문제를 끌고 나아가면, 교계의 큰 단체들이 뒤늦게라도 나올 것이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렇더라도 여러 단체들이 나와 함

께 대응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라크, 시리아 등지에 거처를 두고 이슬람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IS (Islamic State)'는 대정부를 상대로 한 전쟁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일반인을 상대로 한 폭탄 및 총기 테러를 저질러, 경제 대상 1순위로 꼽히고 있다.

국내 이슬람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매우 위협적 요인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일부에서는 국내 이슬람 인구가 최근 10년 새 무려 80배가 늘어 현재 40만 명에 육박한다는 통계까지 내놓은 상황이다.

이에 한국교회는 정부를 상대로 할랄식품 반대 및 이슬람 대책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의 중립적 특성 상 종교적 문제에 직접적인 제재를 하기기는 어렵다. 창립예배 후 이어진 '이슬람 지도자 양성 인턴시브 코스'에서는 이해훈 의원(바른정당)이 특강을 펼쳤으며, 김윤생 목사(연구위원장)가 이슬람 지도자 양성 인턴시브 강연을 3시간여에 걸쳐 진행했다.

한편, 이슬람 대책협의회회는 이슬람의 실체를 한 눈에 알 수 있는 만화책 '이슬람! 그들이 오고 있다!'와, 책 '평화의 탑을 쓴 혈전의 종교 이슬람'을 제작해 전국교회에 배포하고 있으며, 이슬람 대책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서, '국내 이슬람교 확산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지도자용과 평신도용으로 나누어 발간했다.

문의 : 070-4268-1965, 010-6642-4131.

한국이슬람대책협회.

동아일보의 엇나간 반종교적 주장 광고

사회적 공익을 무시해도 되는가?

지난 1월 7일 자 동아일보에 난데없는 이상한 광고가 실렸다. 그것은 소위 영생교 교주 고 조희성을 추켜세우는 내용이었다. 그내용에 보면, '조희성님은 온 인류가 고대하던 구세주가 틀림없습니다' '조희성님은 일개 종교의 교주가 아니라, 온 인류의 구세주입니다' '조희성이 모든 사람 속에 분신으로 들어가 그마음을 마음대로 조종하시는 전지전능한 능력의 구세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참으로 해괴한 일이다. 그렇다면 영생교(영생교하나님의성회승리재단)의 이류가 주장하는 바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생교의 반사회적, 반종교적 행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교주인 고 조희성은 '살아 영생'을 주장했지만 2004년 72세의 나이로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만행은 우리 사회를 경악케 하였다. 위키 백과에 따르면 이들은 영생교 탈퇴자를 감금하여 폭행한 사실이 있고, 교주를 연행하려던 경찰관에게 감금 및 폭행을 가하였으며 영생교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진 살인 및 유괴가 다수 발굴되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법의 엄중한 단죄가 있었고, 언론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1994년 2월 MBC 'PD 수첩'이 보도했다. 이후 1994년 3월 KBS '추적 60분'에서도 보도했고 1996년에도 추가 보도하였으며, 2003년에는 2부작으로 보도하는 등 그들의 악마성이 우리 사회에 그대로 알려지게 되었다.

교계방송 최초 생방송뉴스 'CTS NEWS'

CTS, 뉴스 개편 2017년 새해 확 바뀐다!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가 새해부터 뉴스를 생방송으로 개편한다. 국내 교계방송에서 메인 뉴스가 생방송으로 편성된 것은 CTS가 처음이다. 매일 오전 11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CTS NEWS'를 통해 다양한 교계 소식을 보다 생동감 있고 정확하게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먼저, 'CTS NEWS'는 방송시간을 90분 확대해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한다. 기독교명사들을 만나 교계와 사회 각 분야의 이슈를 더욱 깊이 있게 나누는 시간 '뉴스 THE보기'와 그날 핵심 뉴스를 빠르게 보도하



는 '카드뉴스', '크리스천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Q&A' 등 다양한 기획 코너가 준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방송해 왔던 데일리뉴스는 국내 교계 이슈는 물론 지구촌 소식, 분야별 쟁점 뉴스 등을 심도 있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CTS 보도팀 김덕원 팀장은 “지난 22년간 'CTS NEWS'가 지향해 온 곳 뉴스의 방향성과 그 과정에서 쌓아온 제작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 이번 생방송 뉴스 개편의 목표”라며 “메인 뉴스 시간이 늘어남 만큼 다양한 기독교 뉴스들을 함께 담아내고, CTS 뉴스가 그동안 형식과 내용 면에서 교계방송의 리더 역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기독교 방송 뉴스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각오로 또다시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CTS는 오는 3월 20일(월)부터 21일(화)까지 양일간 만나교회에서 제2회 국제기독교교방송미디어컨퍼런스 개최한다.

Brian Bailey(달라스 제일침례교회 미디어디렉터), Len Wilson(Wired church 저자),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신원환 감독(기독교TV '소망') 등이 강사로 나선 가운데 교회 미디어 사역에 대한 목회적 방향제시, 새로운 시대를 위한 다양한 주제 강연, 다음 세대 선교의 Key 모과 일·SNS에 대한 이야기 등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승려룡한 군사 3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딤후 2:3

17.01.29(일) _ 02.01(수)

Target _ 19세 이상 청년 10명

Location _ 엔학고레 센터
충북 괴산군 문광면 송평리 194-1

Contact _ 010-5145-3816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장래의 꿈을!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군서교국(국장 박순용 목사)에서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달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들을 좀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 줄 수 있는 종교서적-성경집, 신앙잡지, 설교테이프, 찬양 테이프, QT 책 등-군생활 속에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심코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챙겨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로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국 국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17학년도 신·편입생 모집요강



(학장 고영권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 051)803-3927
- F A X : 051)581-0198
- e-mail : yhsbs3927@hanmail.net



(학장 김양인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 062)952-7004, 010-5614-2004
- F A X : 062)953-5004
- e-mail : sm1004@daum.net



(학장 최병진 목사)

예하성전북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금 제도, 본 교단 총회 신학, 목회대학원 진학, 목사고시 응시자격 부여
- 주 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
- T E L : 063)251-3978~9
- F A X : 063)251-3980
- e-mail : sunshalom@naver.com



(학장 김상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 043)274-2265, 273-2211
- F A X : 043)237-2705
- e-mail : ho--gi@hanmail.net



(학장 오일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 041)567-3004
- F A X : 041)575-3171
- e-mail : changdeman@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2675-5181~3 FAX:02)2677-5181



영신상조(장례전문) 100% 후불제 (주)안양장례식장 경영

홈페이지 : www.영신상조.kr

30년을 믿음 안에서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영신상조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최저의 비용, 최고의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품 45인승 고급버스, VIP리무진(택일), 영정꽃, 장례상품 일체, 전문장례지도사, 내역 상례도우미, 총괄전문의 < 1호 196만원 2호 3호는 가족들의 선택임 >



▲ 생화사진물(선택형)



▲ 45인승 버스



▲ 최고급 리무진



▲ 근조기



총괄경영주
박인안 장로



콜전화 : 031)444-5566 / 031)386-5566(011-896-7100)

<최신추모관 특별혜택>

2017년 신년하례 및 대표회장 상임회장 임원 신임총회장 취임예배

조용묵 목사 설교...“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 판단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강조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종교개혁 5백주년, 한국교회 제2의 개혁 나선다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지난 1월 9일(월)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2017년 신년하례 및 대표회장 상임회장 임원 신임총회장 취임예배를 드리고 새해 종교개혁 5백 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제2의 종교개혁 이루어 갈 것을 다짐하는 한편 종교다원주의를 뿌리 뽑고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예배는 상임회장 이성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자문위원 송기호 목사의 대표기도, 부서기 정찬희 목사의 성경봉독, 여목회 임원일동의 특송, 계선경, 유승화, 차진주 성서대 강사의 특송, 은혜와진리교회 담임 조용묵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고전 2:13-14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신 원칙’이란 제목의 설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 판단 기준은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고 전하고 ‘현 상황에서 일어나고

있는 온갖 허위와 불의한 행태들을 보며 교회만은 진리 위에 있어야 하며 진리수호를 위해 생명을 걸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예장연합회가 WCC대회 당시 선두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외쳤던 것처럼 거짓을 배격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힘을 더해 줄 것’을 당부하고 참석자들을 축복했다.

설교 후 상임회장 김광호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특별기도로 ‘나라와 통일을 위해’,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들을 위해, ‘사회, 문화와 경제발전을 위해’,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한국교회와 성령충만을 위해’, ‘한국교회 개혁과 성령충만, 종교개혁 5백주년과 예장 연을 위해’ 자문위원 변권능 목사, 상임회장 차득환 목사, 지도위원 황대영 목사, 지도위원 임은선 목사, 상임회장 김승자 목사가 각각 주재별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서울신대 전총장 최희범 목사의 축사, 예장합동선목 총회장 김국경 목사의 축사, 보수교단협 전 상임회장 박동호 목사의 축사가 있었으며 회계 오선미 목사의 헌금기도 순서가 있는 후 조용묵 목사에게 ‘예장연합회가 86개 교단과 일민여 교회로 성장 발전하는데 큰 기도와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라는 감사의 뜻을 새긴 공로패를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와 제18회 총회 총대 일동 명의로 증명했다. 이어 이광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2017년 새해 예장연에 주신 사명이 실로 막중하다고 전하고 종교개혁 5백 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개혁을 위해 세미나 및 출판 등 각종 사업들을 전개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교회 정체성 회복을 위해 이단사이비 배격을 위해 회원교단 모두 협력하여 귀한 일을 이루어 갈 것을 강조했다.

상임회장 이강익 목사의 사회로 열린 취임식은 상임회장 장승우 목사의 기도, 이광용 목사에게 대한 대표

회장 추대장 증정, 대표회장 이광용 목사는 고분 추대장 추대패 수여, 상임회장 추대장 추대패 수여, 총회장 취임장 취임패 수여, 자문위원 위촉장 위촉패 수여, 지도위원 위촉장 위촉패 수여, 임원 임명장 임명패 수여, 각 위원장 임명장 수여, 집필 및 편집위원 임명장 수여, 사회자의 광고, 고분 김태경 목사의 폐회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고 오찬을 함께 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



홈페이지: www.ucts.org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17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넛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3. 전형안내

- ①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② 서류심사 및 면접 : 수시
- ③ 전형료 : 20,000원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금주 사이버신학연구원)

4. 접수방법

- ①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예하성 사이버신학연구원)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전도사 임명자격 부여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 부여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무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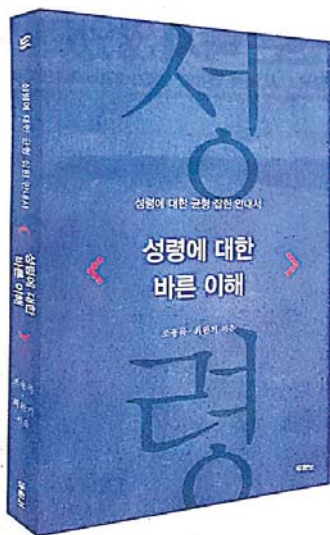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무처 : 02)2678-5181
e-mail: ucts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

잘못 알고 오해했던 ‘성령론’을 바로 잡는 책



성령에 대한 균형 잡힌 안내서

당신은 성령 충만한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는가? 그동안 한국교회는 성령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가르침으로 크고 작은 혼란을 야기해왔다. 이는 곧 성령의 바른 이해를 가린 채 은사주의, 변형신학으로 변저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케 했다. 이 책은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여 성령론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균형 잡힌 지침서가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성령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고,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더욱 성령충만한 삶으로 안내할 것이다.

왜 다시 ‘성령론’인가?

책을 집필하기 전 저자의 고민은 ‘이미 수다한 성령에 관한 책이 출간되어 임혀지고 있는 이 때에, 굳이 또 한 권의 책이 출간될 필요가 있는가?’였다. 그럼에도 출간을 결심한 것은 ‘성도들의 성령에 대한 왜곡된 이해’가 가장 큰 이유였다. 신학의 여러 분야 가운데서도 유달리 성령에 대한 이해는 심지어 같은

교단이라 해도 다른 견해를 가지곤 한다. ‘성령세례’와 ‘방언’, ‘신유’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심하게 왜곡될 경우 ‘신비주의’나 ‘은사주의’로 빠질 수 있기에, ‘성령론’의 연구와 올바른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성령은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은 성령을 무엇이라 말하는가?

성령은 힘이냐 능력이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이다!

저자는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더 깊이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성령은 신약뿐 아니라 구약에서도 성령의 일하심을 기록했고, 이는 태초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성령은 어떤 신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다.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늘 곁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이다. 이밖에도 ‘성령충만’의 올바른 이해와 ‘성령세례’, ‘은사’와 ‘열매’, ‘방언’과 ‘신유’ 등,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하는 이 책의 균형 잡힌 안내를 통해 한국교회의 성숙과 뜨거운 성령충만의 회복을 기대한다.

저 조용묵 목사

은혜와진리교회를 개척 설립해,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의 목자로서 바른 길의 안내자가 되어 주고 있다. 현재 한국신학회 이사장, 세계하나님의성회 실행위원이다.

자 최완기 목사

세인트루이스교회에서 30년 간 목회한 후, 현재 시카고에서 ‘4-14 윈도우’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한 프라미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한교총) 출범! 출발 ‘선’ 부터 잘 못 됐다”

WCC, WEA(종교다원, 혼합주의주의)를 승인한 교단들 - 로마 가톨릭과 ‘신앙과 직제일치’를 저지른 NCCK 가입교단들과 어울려 섞어찌개와 잡탕밥을 만드는 합동측 총회장의 어처구니없는 행보

‘한교총’ 출범과 향후 가입에 있어서 총회장이나, 감독 단독으로 총회 총대들에게 묻지도 않는 상태에서 교단장이라고해서 독선적으로 추진 할 수 있는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총회장, 감독 자신이 교단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교단 법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

WCC와 WEA를 반대하고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 일치를 반대해온 WCCWEA 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송준길 목사는 최근 ‘한국교회총연합회’ (이하 한교총)가 출범한 것과 관련하여 본체의 심지함을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Q ‘한국교회총연합회’ 창립에 가담한 교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정합동과 예정통합, 예정대신,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기독교대한성령교회(기성),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등 7개 주요 교단이 중심이 되고 기독교한국루터회, 대한예수교복음교회 등 한국교회의 95% 이상이 참여한 명실상부한 연합단체가 출범했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자는 연합 일치운동을 저해하는 처사가 아닌가?

A 모르는 소리다. 우리가 ‘한국교회총연합회’ 출범을 문제 삼는 것은 한국에 있는 기독교교회 (이하 한국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다. 바բ 말 하면 ‘한국교회총연합회’가 출범한 이것은 한국교회 95% 이상 물력을 초래하는 비극이다. 이 비극을 막고 한국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한국교회총연합회’ 출범을 반대하는 것이다. 연합일치에 의해 도리어 한국교회가 몰락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거나 하는가?

Q 7개 주요 교단을 비롯하여 한국교회 95% 이상이 연합일치로서 1)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고 2)‘대정부 활동과 대사회적 기독교 변증 역량을 극대화’를 위하여 창립한 ‘한국교회총연합회’ 출범이 어떻게 한국교회 물력을 초래 한다고 하는가?

A WCC(세계교회협의회)의 정체성 때문이다. WCC는 WEA(세계복음주의 연맹)와 연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라는 깃발을 앞세워 ① 에큐메니칼운동 ② 신앙과 직제일치운동 ③ 글로벌 크리스천 포럼이라는 운동을 펼친다. 이 운동은 기독교회에게 있어서 최대의 비극이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이 사실은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모르고 있다. WCC가 WEA와 손잡고 펼치는 이 운동의 핵심은 ‘가톨릭’이다. 기독교회를 일치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의 기독교회는 500년전, 루터와 칼빈 등으로 비롯된 종교개혁자들이 비 성경적이고 반 기독교적인

‘가톨릭’의 교리와 제도에 죽음으로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본래의 성경적인 기독교 회로 회복하여 오늘에 이른 500년 기독교회 역사와 한국교회 130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회이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기독교회를 잠탈하게도 요 17:21 말씀을 왜곡하여 그리스도인 일치라는 명목을 앞세워 ‘가톨릭’에 일치시켜 기독교회를 없애버리는 WCC이다. 종교개혁 500년 역사와 한국교회 130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회를 WCC, WEA가 추구하는 노선을 따라 ‘가톨릭’에 일치 시켜 버리면, 기독교회가 어떻게 되겠는가? 생명이 끝나고 더 이상 역사를 이어갈 수 없는 종말이 고해지고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린다.

WCC는 WEA와 연합하여 ‘가톨릭’에 일치시켜 이 땅에서 기독교회를 없애버리는 정체성을 가졌고, 가관인 것은 이를 목적으로 1963년부터 매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일치 기도주간을 정해 놓고 일치를 위한 기도회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WCC와 WEA가 정성적인 세계 기독교 연합단체라고 한다면 세계에 있는 기독교회를 더욱 발전, 확장시키고 굳게 세우나가고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들은 기독교회를 ‘가톨릭’에 일치시켜 세계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를 없애 버리는 정체성을 가졌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을 비롯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이하 NCCK)도 WCC를 본받아 1987년부터 매년 일주간씩 ‘가톨릭’과 하나의 일치를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일치기도회를 개최해 왔다.

결코 제 정신이 아닌 처사이다.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가? 2009년도에 김삼환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총회장과 NCCK회장 재직 때에 ‘가톨릭’에 통합교단과 NCCK를 일치시켜 버렸다. 일치시킨 이것을 따라 2014년도에는 서로 다른 신앙과 직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기구를 창립하였으며, 가톨릭과 가까이 사귀기로 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함께 공부하기, 함께 행동하기로 조약을 맺고 서명하여 창립하기까지 했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 동안의 기독교회를 떠나 ‘가톨릭’에 가서 ‘가톨릭’과 일치한 무리들이지 더 이상 루터, 칼빈 등 믿음의 선진들에 의한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회가 아니다. 아닐 뿐만 아니라 배교자들이며 반역자들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교단들이 핵심이 되어 창립한 ‘한국교회총연합회’이고 그 규모가 한국교회 전체 95% 참여라고 하니, 그 만큼 WCC물결에 한국교회가 미혹되어 젖어 버린 반증이고 타락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한다.

Q ‘한국교회총연합회’ 출범과 관련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의 처사에 대하여 의견이 상당히 크다고 들었다. 한교총 출범과 관련하여 합동교단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정체성은 생명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명의로 총회장이 발기인으로 나서서 ‘한국교회총연합회’를 창립해서 출범시킨 이것은 합동교단의 정체성을 완전 망각한 처사이고 생명을 상실한 행동이다. 합동교단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1969년도에 장로회 한 부리가(통합) WCC에 가입함에 WCC를 반대하고 통합교단과 분리한, 이것을 생명으로 태어나서 지금에 이른 합동교단이며 개혁과 보수를 지향하며 지금까지 크게 성장해온 합동교단이다.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WCC를 적그리스도이며 종교다원주의라고 몰아붙이며 WCC 부산총회를 반대했던 합동교단이었다. 설교하는 강단에 통합교단 목사를 세우지 않기로 강단교류 금지를 한법에 명시한 합동교단이다. 이러한 정체성과 역사를 가진 합동교단이 기독교회를 떠나 ‘가톨릭’과 일치해 버린 통합교단을 비롯하여 종교다원주의 WCC 회원이며 NCCK 회원교단들과 연합하여 ‘한국교회총연합회’를 창립한 합동교단은 타고난 생명, 곧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행동이며, 지금까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해 버린 행위다.

기독교회를 떠나 가톨릭에 자신들을 일치시켜 버린 통합교단이나 NCCK가 회개를 하더라도 했던 말인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예수님 외에도 구원자가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WCC총회를 부신에 유지하고 개최한 것에 대해 이들이 한국교회 앞에 사과라도 했던 말인가? 가톨릭과 서명하여 조약을 맺고 창립한 ‘신앙과 직제일치의 회’를 폐기 선언이라도 했던 말인가? 종교개혁 500년 역사를 가진 기독교회에 대해 배교, 반역, 역적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과 합동교단이 어떻게 연합과 일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같은 합동교단의 행위는 기독교회를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는 대적을 용인하는 행동이며, 연합일치라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은 WCC 울무에 함몰이 걸려든 행동이다.

개혁주의 장로회로서 보수교단의 장자로서 통합교단과 NCCK회원 교단들에 대해 WCC 탈퇴를 종용하고 ‘가톨릭’과 일치한 것을 책망하고 사과를 받아내고 한국교회 안에 인본주의 사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세우고 주의 몸 된 기독교회를 지키는 본을 보여야 할 합동교단이 도리어 연합일치라는 WCC 미혹의 울무에 걸려서 합동교단의 정체성과 맡겨진 사명을 상



송 준 길 목사
WCC, WEA 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장

실하고 도리어 WCC노선에 동류가 된 지금 상태이기에, 제 역할을 못함에 분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한교총’ 출범과 향후 가입에 있어서 총회장이나 감독 단독으로 총회 총대들에게 묻지도 않는 상태에서 교단장이라고해서 독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모르겠다. 만약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면 총회장, 감독 자신이 교단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하여 교단 법을 무시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닐 수가 없다.

Q 가톨릭과의 신앙과 직제일치 반대운동을 펼친 것으로 알고 있다. 가톨릭도 기독교회로서 같은 기독교회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연합일치를 반대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A 가톨릭이 기독교회라는 것은 거짓된 지식이다. 가톨릭은 기독교회가 아닌, 유사 기독교회로서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독교회가 아니고, 로마제국의 종교로서 가톨릭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독교회를 로마 제국이 AD 300년경 국교로 삼았고 이 과정에서 로마제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 사함을 받았거나 의롭다함을 얻었거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등의 과정 없이, 로마 제국의 국민이면 바벨론의 여신이나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을 기릴 것 없이 기독교회가 된, 이것이 가톨릭이다.

가톨릭은 로마제국의 혼합주의 종교로서 지금도 여러 우상을 숭배하며 죽은 자와 시신까지도 숭배하며 그들이 남긴 유물까지도 숭배한다. 뿐만 아니라 신부가 제사지내는 사제가 되어 제단위에 빵과 포도주를 올려 놓고 제사 지내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믿고 예수님을 매년 희생 제물로 삼아 제단에서 신부가 제사를 지내고 이를 먹고 마시는 이교이며 유사 기독교회이다.

성경적인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단번

에 이루사, 그 길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고 화해관계가 되어 감사, 찬송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한다. 미사는 제사로서 예배와는 완전히 다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헛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십자가의 원수이다. 뿐만 아니라 신을 믿지 않고도 선행이나 선한 마음으로 천국(구원) 간다고 주장하며 이슬람도 형제라고 연합일치를 추구하는 종교가 가톨릭이다. 이러한 로마 가톨릭은 유사 기독교회로서 비 성경적이며 반 기독교적이며 이교다. 기독교회가 이러한 가톨릭에서 어떻게 떨어져 나왔단 말인가?

이는 WCC, WEA가 기독교회를 로마 가톨릭에 일치시키기 위해 퍼뜨린 거짓이고 음모에서 비롯된 간계이다. 신교회는 말도 역시 맞지 않다. 기독교회는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것도 아니고 새로 생긴 종교도 아니다. 비 성경적이며 반 기독교적인 로마 가톨릭에 목숨 바쳐 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복음을 본래대로 회복시켜 성경적으로 역사를 이어 오늘에 이른 것이 기독교회이다.

기독교회가 신교나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왔다고 하는 주장은 로마 가톨릭이 의도하고 WCCWEA가 하수인이 되어 기독교회를 온갖 우상을 다 숭배하는 로마 가톨릭의 이교에 일치시켜 기독교회의 생명을 끊어 없애 버리려는 사탄의 간계에서 비롯된 거짓된 지식이다.

Q 예정합동과 예정통합, 예정대신, 기감, 기성, 기하성, 기침 등 7개 주요 교단이 중심이 되어 한국교회 95%가 참여해서 ‘한국교회총연합회’를 출범한 현 상태가 문제라고 한다면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가?

A WCC, WEA 완전 단절해야 한다. 이들은 일치운동으로 기독교회를 가톨릭에 일치시켜 없애 버리는 무서운 정체성을 가졌다. ① 그러기에 통합교단을 비롯한 NCCK회원 교단은 WCC 회원에서 한시 빨리 탈퇴 선언을 공식화해야 하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역시 WEA회원에서 즉각 탈퇴 선언해야 하고 가톨릭과 맺은 관계를 폐기 선언을 공식화해야 한다. ② WCC, WEA, 가톨릭이 연합하여 펼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 즉 교제, 대화, 공존, 화합, 연합일치로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자는 노선이 기독교회를 이 세상 종교에 일치시켜 혼합으로 없애려는 위장된 미끼라는 정체를 알아야 한다. ③ ‘한국교회총연합회’를 창립함에 앞세운 ‘각 교단의 신학적 정체성과 전통을 그대로 존중한다’는 주장 역시 파기해야 한다. 이는 WCC, WEA가 로마 가톨릭에 기독교회를 일치시켜 없애기 위한 길이고 뼈저리게 되면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함정이기 때문이다. ④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고, ‘대정부 활동과 대사회적 기독교 변증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한국교회총연합회’ 출범 평론은 맞고 옳아 보이지만 인본주의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러주시는 성경적 연합일치가 어떤 것인지 바로 알고 파기해야 한다. 인본주의 사상으로 성경적인 기독교회를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무너뜨리기 때문이다.

“누가 철학과 학문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 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좇음 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골 2:8)



“지구촌 이슈에 대한 세계시민들의 모임!”

월드비전, ‘지도밖행군단’ 12기 모집

국제구호개발NGO월드비전(회장 양호승)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모임인 ‘지도밖행군단 12기’를 모집한다.

지도밖행군단은 전 세계 아동권리를 침해하는 빈곤과 불평등, 부정부패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에 앞장서기 위한 20대 청년 서포터즈다.

지도밖행군단 모집 기간은 1월 31일까지이며, 세계시민으로서 활동하길 원하는 20대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는 월드비전 홈페이지(www.worldvision.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작성 후 메일(advocacy@worldvision.or.kr)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월드비전 홈페이지와 전화(02-2078-7075)로 문의할 수 있다.

최종 합격자로 선정되면, 역량강화워크숍을 통해 월드비전과 활동 내용에 대한 교육을 받고, 월 2회 정기모임을 통해 회의와 프로그램 기획 및 준비를 하게 된다.

주요 활동 내용으로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과 실천 방안 모색, 국제개발협력 기본 가치와 동향 이해, 지구촌 아동 관련 이슈 스터디, 지구촌 아동권리 및 보호를 위한 대중 캠페인, 정책제안, 세계시민교육 활동 등이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월드비전의 꽃들에게 희망을(여아



교육), DAP 하다(이주아동구급반대) 등을 주제로 시민대상 캠페인을 하거나 법무부 대상 정책 제안서를 작성하는 등 세계 시민으로서의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장현일 원장 인천교육청과 공공정책 연구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회의 역할” 제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이청연 교육감) 인천교육과학연구위원회(위원장 이승복) 교육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인천교육 중단기 발전 방향 연구” 정책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교육정책연구소 신선휘 박사팀과 함께 공동연구원으로 한국교회 공공정책을 연구하는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원장인 장현일 박사(생명나눔교회 담임)가 참여했다.

장현일 원장은 이 연구에서 “한국교회의 공공성과 공공회성 회복을 통해 교회가 지역 사회와 깊은 신뢰의 관계와 연대를 맺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여 지방교육자치 측면에 있어 인적, 물적,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현일 원장은 교회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를 이끌어 갈 다음 세대 양육에 있어 가장 먼저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방과 후 학교를 통해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하여 창의 융합형 인재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생명과 성정이 있는 학습생태계로서 방과 후 학교의 참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지체와 상호 협력 파트너십을 발휘하여 지역사회 중 특히 교회와 학교는 소통을 통해 사회적 기여와 공헌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의 소집과 적성을 길러주는 적성 프로그램과 방과 후 보육 서비스인 돌봄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교회의 재정, 인적 지원은 물론 시설과 공간 활용 등 다각도로 지역사회와 연계된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교회사명과 공유로 더욱더 지역 주민에게 다가서는 섬김의 사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 전격구성 결의

사)한국교회연합 임원회 · 교단장 · 총무 간담회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은 지난 1월 6일 서울 팰리스호텔에서 제6-1차 임원회 및 회원교단장 총무 간담회를 갖고 한국교회 연합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한교연은 이날 임원회에서 한교연을 배제한 채 가칭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라는 새로운 연합기관이 결성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는 한교연과 한기총의 통합을 통해 진정한 한국교회 하나되기 실현을 바라는 한국교회에 더 큰 실망과 부담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교연이 통합에 소극적인 자세라는 일부 여론을 불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해 나간다는 뜻으로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회 구성을 전격 결의했다.

한국교회통합추진위원회는 고시영 목사(통합)를 위원장으로서기에 황인찬 목사(개혁개신), 위원에 서광근 목사(예성), 송태성 목사(교령개혁), 김희선 목사(피어선 통합) 5인을 선정했다. 한교연이 구성한 5인 통합추진위원회는 앞으로 한기총과 직접 대화를 통해 기관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한교추와도 적극적으로 대화하기로 했다.

한교연은 그러나 한기총 내 이단이 정리되지 않은 상

태로 통합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한기총이 이단을 배격한다면 아무 조건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통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이날 임원회 및 교단장 총무 간담회에서는 최근 한교추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교단장이 “한교연이 한기총 개혁을 위해 따로 나와 한교연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개혁 대상이 되었다”고 또 언론에 인터뷰한 것과 관련, 이는 한교연에 한 번도 참여한 일도 없으면서 근거 없이 본회를 비방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하고 일단 당사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발인의 진위를 따진 후 추후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또 다른 교단장이 교단장회의에서 본회 증경대표들에 대해 일에 담긴 힘든 욕심을 피부으며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대응하기로 했다.

한편 임원회는 본 회 제6회기 역점 사업으로 종교개혁 500주년과 평양대부흥운동 110주년을 맞아 대교회 사역, 대사회 사역, 대정부 사역 등 크게 3가지 중심사역을 정하고 교회 갱신과 연합운동, 사회적 약자를 위한 섬김 사역, 대선을 준비하는 정책 사역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기로 했다.

홀트, 30일까지 캘리그래피 작품전

세종문화회관 한글갤러리에서 해외 입양인 작품 전시

홀트아동복지회(회장 김대열)는 1월 3일부터 30일까지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한글갤러리에서 해외입양인 캘리그래피 작품전 ‘인연을 엮다’를 진행 중이다.

2016년 가을, 장애를 가진 해외입양인과 가족·지인 초청프로그램인 ‘Happy Together 2016’을 진행했으며 한국요리, 붓글씨, 시티투어, 입양기록 열람, 위탁모상봉, 친가족 상봉 등의 일정을 가졌다. 이



때 강병인 캘리그래퍼의 재능기부로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이라는 작품을 함께 구성했다.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사항은 홀트아동복지회 홈페이지(www.holt.or.kr)를 참조하면 된다.

홀트아동복지회는 1975년부터 해외입양인들의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한 한국문화체험, 아동복지시설 방문, 가족 상봉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백석대, 중국서 제2기 천안시중국어캠프 진행중!

백석대학교(총장 최갑종)가 주관하고 천안시가 주최하는 ‘제2기 천안시중국어캠프’가 현재 중국 위헤시 분둥구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천안시 중·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2기 천안시중국어캠프는 1월 10일(화)부터 20일(금)까지 10박 11일의 일정으로 계획되었으며, 천안시상품전시관 견학과 중국 현지 고등학교(위헤성의외국어학교)를 방문해 중국어 교육은 물론 붓글씨, 중국전통만두 만들기, 천목은천

체험, 유적투어 등의 문화체험에도 나서고 있다.

지난해 여름 진행되었던 제1기 천안시중국어캠프와 마찬가지로 이번 일정에는 백석대학교 교직원도 물론 간호학과 재학생 2명이 함께해 학생들의 건강을 챙겼고, 백석대 중국인 유학생 2명도 동역과 안내를 맡았다.

이번 캠프에 참여한 천안 오성고등학교 인미정 학생(2학년)은 “중국 딸기밭 체험으로 중국의 우수한 농촌환경을 경험하며 중국 상품을 싸고 질이

나쁘다는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며 “중국인 친구들의 집을 방문해 그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앞으로도 중국어 공부를 열심히 해 계속 연락하며 지내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캠프는 중국 출국 이전부터 10주간의 수준별 중국어 기초교육과 닷새 동안의 중국어 집중교육, 진로체험 등으로 기초적인 부분을 준비해왔으며, 지난 제1기 천안시중국어캠프의 경험으로 더욱 수준 높은 캠프로 진행되고 있다.

백석문화대학교 2017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5.86대 1

백석문화대학교(총장 정중현)는 1월 3일(화)부터 13일(금)까지 2017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 결과 마감일(오후 5시 기준) 388명(일반전형) 모집에 2245명이 지원해 평균 5.8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2017학년도 정시모집에서는 간호학과가 17명 모집에 523명이 지원해 30.76대 1로 가장 높은 경

쟁률을 나타냈으며, 보건행정학과 20.50대 1(4명 모집, 82명 지원), 실용음악학부 보컬 20.11대 1(9명 모집, 382명 지원)의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다.

정시모집 전형은 지원자를 대상으로 일부 학부(과)에 한하여 면접 및 실기고사 실시 후 2월 3일(금)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백석문화대학교는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가장 높은 최우수 ‘A 등급’을 받았으며, 2014년 교육부 주관 특성화 사업에서 ‘전문대학 특성화 육성사업’, ‘세계로 프로젝트’ 등 두 사업 선정과 함께 2015년 기준 29개 사업체 78명의 학생들이 해외취업에 성공해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발표 전국 전문대학 중 해외취업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대표 김옥태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류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모하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 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19,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110-357-991640 신한은행 예금주 김옥태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14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대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

2017년 신년하례 감사예배

“국가 안보 위해 기도, 한국교회의 정체성 회복과 개혁에 앞장” 다짐



인사말
정부용 목사
대표회장

(사)한국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 정부용 목사)는 지난 1월 6일(금) 오전 10시 30분, 은혜와 진리교회 영등포성전에서 2017년 신년하례 감사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한해를 하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올 한해도 충성되게 감당함으로 바른 복음전파와 성경

대로의 복음전파를 위해 매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사무총장 김용도 목사의 사회로 시작하여 고분 최상열 목사의 대표기도, 부서기 김동민 목사의 성경봉독, 고분 조용목 목사의 설교 순으로 이어졌다.

조 목사는 엡 6:12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오늘의 혼란스런 세태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깨닫고 진정으로 나라의 정태와 교회의 유익을 생각하여 튼튼한 국가안보와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복음전파를 위해 담대하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회원들을 축복했다.

대표회장 정부용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2017년 한 해 순종하는 마음으로 대표회장의 직임을 감당해 나갈 것”을 밝히고 “회원교단간 친목과 이단사교 교회집부 방지, 교회권익보호 공동대처, 교역자 지질향상, 동성애 차별금지법, 이슬람의 침투 저지, WCC 종교다원주의와 반기독교적인 단체들의 교회파괴 행위에 대한 대응을 위해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특별기도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복회 발전을 위해’, ‘북한복음화를 위해’ 회장단 김명희 목사, 회장단 김혜순 목사, 부회계 정덕화 목사가 각각 주제별 기도

를 인도했다.

이어 법인이사장 공병철 목사의 한글기도, 사회자의 광고, 고분 최보기 목사의 축도로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고 새해 회원들은 한국교회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바른 복음전파를 위해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을 다짐했다.

회원들은 오찬을 함께하며 올 한해 한국교회의 막중한 과제를 힘을 모아 풀어가길 것을 다짐했다.



설교
조용목 목사
고문



축도
최보기 목사
고문



개회기도
최상열 목사
고문



사회
김용도 목사
사무총장



현금기도
공병철 목사
법인이사장



특별기도1
김명희 목사
회장단



특별기도2
김혜순 목사
회장단



특별기도3
정덕화 목사
부회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2017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
임·회원 명단

| 문의 |
회장 신재영 목사
HP : 010-4420-8650
상임총무 김견수 목사
HP : 010-3698-576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부흥사회에서는 도시 지역 미자립교회(성도수 20명 이하) 및 농·어촌, 산간벽지, 낙도 교회들을 대상으로 자비량 부흥성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부흥회를 열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망설이고 계시는 교회는 부흥사회로 연락을 주시면 적극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대표고문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증경총회장	총회장
조용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김상용 목사 (청주중앙순복음교회)	유봉수 목사 (은혜와사랑의교회)	진동용 목사 (새소망교회)	김용덕 목사 (영등제일교회)	임종달 목사 (전주은혜와진리교회)	최광덕 목사 (일산은혜교회)	이창재 목사 (진부제일교회)	김인규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조남영 목사 (가평순복음교회)
지도고문	지도고문	증경회장	증경회장	회장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김인찬 목사 (청신교회)	정부용 목사 (대림반월교회)	엄기설 목사 (은혜와천양교회)	김희태 목사 (간연교회)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임영광 목사 (연천순복음중앙교회)	오승욱 목사 (천안서복교회)	황연 목사 (은혜와평강교회)	김병목 목사 (금산순복음교회)	정석현 목사 (평강교회)
상임위원	상임위원	상임위원	부회장	부회장	상임총무	상임부총무	상임부총무	사무국장	실무총무
김임복 목사 (순복음무등교회)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신동수 목사 (순복음임나루교회)	김기진 목사 (제천순복음양문교회)	서정복 목사 (남원중앙교회)	김견수 목사 (순복음예수교회)	윤혜영 목사 (순복음주천교회)	김박수 목사 (순복음진리교회)	최정식 목사 (순복음복원교회)	김병목 목사 (순복음행복교회)
실무총무	서기	재무	회계	감사	감사	회원	회원	회원	회원
박흥열 목사 (오성서교회)	성기찬 목사 (동울산순복음교회)	조은혜 목사 (순복음빛교회)	양은혜 목사 (창조교회)	김종연 목사 (은혜교회)	최남성 목사 (등강순복음교회)	윤성수 목사 (전주은평교회)	권택선 목사 (순복음하은교회)	김연옥 목사 (행복한선교회)	이화숙 목사 (전주순복음우리교회)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회원
임영철 목사 (순복음승리교회)	홍현자 목사 (사랑과평화교회)	조병희 목사 (기정순복음교회)	김명주 목사 (순복음빛교회)	정환무 목사 (순복음빛교회)	김남수 목사 (밝은빛교회)	최승수 목사 (순복음소망교회)	서범석 목사 (기나안영성교회)	정예스터 목사 (예수왕기교회)	육보애 전도사 (소망농교회)

제9차 탄핵무효 태극기집회 개최

정치권, 특검 등에 보내는 메시지도 채택

대통령탄핵기각을위한국민운동본부(이하 탄핵기각본부) 등 1백여 개의 단체는 지난 1월 14일 오후2시 동숭동대학로에서 '제9차 탄핵무효 태극기 집회'를 갖고 대한민국 수호에 이들 단체들이 앞장 설 것을 천명했다.

종북 좌파로 인해 위기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기독교지도자들이 대한민국 수호를 외치며 일어난 것이다.

이날 집회는 진택중 목사(예장연합총회 총회장)의 사회로 권영해 전 국방장관의 개회선언, 문제선 목사(예장사명자총회 총회장)의 대표기도, 이승현 목사의 설교, 조성훈 목사·김항주 목사·이중택 목사의 정치권에 보내는, 특검에 보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채택 순으로 진행됐다.

'제9차 탄핵무효 태극기집회'는 이상훈 전 국방장관의 격려사와 김순린 목사의 선창으로 참석자 모두 구호제창을 가졌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목회자 수백 명이 50미터에 이르는 초대형 십자가를 지고 동숭동을 출발해 퇴

계로를 거쳐 시청 앞에 이르기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퍼포먼스도 펼쳤다.

군산영생교회, 장기기증 서약예배 드려

174명 성도 장기기증 서약하고 생명나눔운동에 동참



지난 1월 8일(주일) 전북 군산시 서흥남동에 위치한 군산영생교회(담임목사 이대수)에서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예배가 드려졌다.

이날 이대수 담임목사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 하신다'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질병으로 고통 받는 이웃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다. 말로만 사랑을 전할 것이 아니라 생명도 살리고 복음도 전하는 생명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하자"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주저함 없이 모두 함께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전했다.

이에 김동성 집사는 "생명나눔운동에 가족과 함께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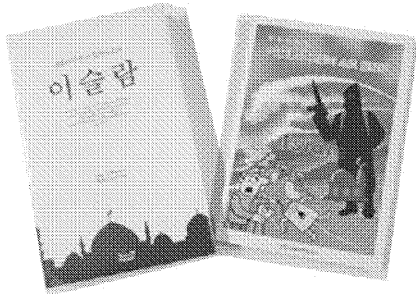
성도들도 장기기증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선입견을 버리고 함께 동참하여 나눔의 기쁨을 나누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당일 군산영생교회 성도 174명이 장기기증을 서약하고 58명이 후원에 참여해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하였다. 뿐만 아니라 군산영생교회는 앞으로 새해 첫 신년예배를 할상 사랑의 장기기증 서약예배로 드리기로 결정하며 이웃사랑을 약속했다.

장기운동본부 박진탁 목사는 "생명 나눔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장기기증 문화 정착을 위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자"는 소감을 전해주었다.

이슬람의 실체를 한눈에

한국이슬람 대책협의회회



이슬람 대책협의회회는 이슬람의 실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만화책 '이슬람! 그들이 오고 있다!'와 책 '평화의 탈을 쓴 혈전의 종교 이슬람'을 제작해 전국교회에 배포하고 있으며, 이슬람 대책 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서, '국내 이슬람교 확산에 따른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지도자용과 평신도용으로 나누어 발간했다.



문의 : 070-4268-1965, 010-6642-4131, 한국이슬람대책협의회.

사설

바른 역사교과서, 교회가 가르치자!

1천 653개교를 운영하는 900여 개 법인 이사장들의 모임인 전국사립초중고 법인협의회(회장 최현규)는 지난 해 12월 국정역사교과서 현장 검토 본을 면밀하게 읽어본 결과 "좌우 균형 잡히고 대한민국 정통성이 잘 부각되어 있다. 국정교과서 자격이 충분하다"라고 평가하고 올 3월 신학기부터 학교에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북·좌익세력의 국정 역사교과서 거부책동에 직면하자, 교육부는 당초 올해로 예정했던 국정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전면 적용을 1년 유예한다는 굴욕적인 발표를 했다.

급년에는 기존의 검안정교과서를 사용하며 국정교과서는 희망하는 학교만 '연구학교'로 지정해 사용하게 하고, 2018년에는 각 학교별로 국정과 검정 중에서 선택하는 '국·검정 혼용'을 추진한다는 타협안을 내놓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국정화를 철회한다는 의미다. 전교조 출신 교사들이 교과서 선택 주도권을 쥐고 있는 전국의 중·고교들은 아무도 희망하는 학교가 있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중·고교 국사교과서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박근혜 정부의 시책은, 좌익·종북 국사학자들이 주류인 국사학계가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평양조선노동당 정권을 고양시키는 왜곡 역사기술을 하여 나라의 장래 주인인 자녀들에게 무서운 좌익 역사인식을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교육해야 한다는 구국적 차원에서 추진된 것이다.

2년이나 준비한 정부의 정상화 된 국사교과서는 그러나 소리 없이 죽어가고 있다. 한국교회는 좌시할 수 없다.

전국의 초·중·고교 수자는 초등학교 5천813개, 중학교 3천 77개, 고등학교 2천 190개다(2010년). 도합 1만 1천여 개다.

전국에 6만 교회당과 7만 목회자가 있다. 교회가 앞장서서 바른 국사 교육을 하는 것은 나라를 그릇된 역사관에서 구하는 가장 중요한 구국행동의 첫걸음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주님 사랑 하는 나라로 지켜내는 일이다. 이 나라를 위기 때마다 구한 한국교회의 역사를 생각하자.

남북한 극한 대립 ...국가안보 최우선 되어야

제갈은도 영하 10도의 올해 최대 추위를 무릅쓰고 1월 14일 토요일, 서울 대학로와 청계천 입구, 그리고 서울역을 가득 채운 국가안보를 위한 외침과 종북·좌익 척결 태극기 물결 시위는 실로 감격,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이날 집값이 50만이 넘는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이 운집하여 각 방향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거리행진 시위를 벌였다.(백만 운집 주장) 이러한 호헌 세력의 거리 시위는 주말을 거덜할수록 위세를 더해가고 있다.

작년 11월부터, 이른바 '국민총궐기본부'라는 좌익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주장하면서 촛불을 켜고 국민 선동 시위를 자행해 왔다. 심지어 '노동자 정권을 세우자'는 등 불법 구호를 외치며 대동시대를 방불케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우국 대한민국 수호 세력이 드디어 분노하여 일어난 국민 저항 시위다. 이제 나라를 좌익·종북 세력의 손에서 능히 구할 수 있는 위세로까지 발

전하고 있다.

"대통령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약칭 탄기국)",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국가기도연합 미스바 구국기도회" 등 50여 개 애국진영이 주도한 대규모 태극기 거리 애국시위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모든 과정이 처리되어야함을 외치고 불법적인 주장을 하는 일부 단체의 불법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앞으로도 이들 애국 단체들은 하나로 단결하기로 했다한다.

이들 태극기 시위 애국세력의 주축은 남북한의 극한 대립 상황에서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하는 애국시민의 모임이다. 14일 대학로 시위에서는 수 백 명의 목회자들이 대형 십자가를 지고 이 나라를 종북·좌익 세력에게서 지켜주실 것과, 법을 위반한 채 온갖 혐의를 뒤집어 씌우며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민주주의의 바른 정의가 실현되기를 촉구하는 기도모임이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증거가 분명하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경기남지방회 다메섹교회 ACADEMY

목회자 세미나 기획안

각 교단의 교세확장을 위한 세 불리기 목회자 양성은 영성과 인성, 영적진단과 처방 등 목회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앙적 인격을 갖추지 못한 채 목회현장으로 내몰리며, 목회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생계도 유지 못하는 난항에 이른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기성 지도자들의 교회내 각종 금융 비리와 절제되지 못한 사생활문제는 교회 문제를 떠나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개신교의 위기를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새롭게 출발하는 목회 초년생들과 이제 겨우 어려운 고비를 넘긴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땅 끝까지 복음전파라는 목회자의 사명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주의 종들이 늘어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며, 기성 목회자들의 자성과 회개, 그리고 뚜렷한 목회관 없이 성공목회라는 세상과 야합한 신기루를 염원하며 목적 없이 영적으로 방황하는 목회자들에게, 예수께서 보여주신 참 목회자상과 신앙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함으로 그들의 목회에 힘과 용기를 주고자 장고 끝에 다메섹순복음교회에서 목양신문사와 공동으로 목회자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한다.

참 목회자 상과 목회자들의 새로운 이정표

1. 그리스도의 계시: 아포칼립시스
마 13:35 천국은 창세 전에 사람들에게 감춰져있어, 천국이 드러나도록 비유를 잘 해석해야 천국이 발견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은 감춰진 채로 남게 되고, 깨닫는 자에게는 천국이 너희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감취진 만나,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양식,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3. 하나님께서 예수께로 속히 될 일을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의 종, 요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곧 감취진 그리스도입니다. 재림은 공간이동이 아니라 육적차원에서 영적차원의 것으로 영의 눈이 열려야만 이를 깨닫고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4.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양모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5. 우리 인격 속에 하나님의 지혜, 능력, 실력, 마음됨됨이가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합니다.
6. 독생자의 영광의 핵심은 우리 인격과 능력과 실력이 완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7. 성경전체요약 강의: 창세기-계시록까지

목회자 세미나

- 시간 : 매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30분
- 대상 : 광주를 중심으로 성남, 용인, 곤지암, 수원, 하남, 이천, 여주에 교회를 두고 있는 개척교회, 미지립 교회의 목회자를 중심으로 우선 시작한다.
- 강사 : 강사는 목회자들에게 존경받으며 귀감이 되며 덕망을 갖춘 본 교단 목회자 또는 교수 중에서 선임하되 점차 초교파적으로 확대한다.
- 홍보 : 목양신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한다.
- 위치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현산로 130-40 다메섹순복음교회(담임 이원정 목사)
- 연락처 : 031-765-2791, 010-6202-6312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풍성히 체험하는 2017년”

신년축복기도성회...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과 순종의 생활 다짐

은혜와진리교회(담임 조용목 목사) 신년축복기도성회가 지난 1월 2일(월) 오전 11시부터 각 성전에서 동시에 드려져 갖가지 소원을 가지고 성회에 참석한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년의 하루하루를 변함없이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생활에 진력하기로 굳게 다짐했다.

이날 성회는 지난해 제47회 벨리니 국제성악공쿠

르' 우승자인 소프라노 김은경 선생(이탈리아 베르디 국립음악원)의 은혜로운 특송, 기도회 순서로 진행되었다.

안양성전 나사렛 성가대의 찬양, GNTC 플룻연주

단의 연주와 엘리여성중창단의 특송으로 시작된 기도회에서 조용목 목사는 뱀 33:3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강조하여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

를 인도했다.

성도들은 소리 높여 찬송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실한 지도자들이 각 처에서 많이 일어나 국가와 사회의 요직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도록, 북한의 위협과 도발 행위가 그쳐지고 북한에 복음의 불이 속히 열려 지도록, 국가안보와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종교다원주의자와 사이비 이단들의 도모가 다 허사가 되도록, 이 시대에 교회가 받은 중대한 사명을 힘 있게 감당하며 교회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신년이 되도록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와 함께 성도들은 성령충만하여 신령한 은사와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신년이 되고 각자의 여러 가지 계획과 소원이 주 안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신년이 되기를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조용목 목사는 성도들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 간에 강건하여 활발하게 주의 일에 힘쓰며 올 한 해를 통해서 흥하여 길이 나고 여기고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전례 없는 신령한 체험들을 많이 경험하고 주의 기쁨과 평안이 항상 마음에 가득하도록 축복했다.



<http://agpgs.aogk.org>

2017학년도 제1학기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표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 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원 자격

학 과	과 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석사 (M.M./ Master of Ministry)	4학기 (2년)	- 본 교단의 소속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의 신학교 졸업자(예정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허락을 받은 자

2.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④ 추천서(소정양식) 1부
- ⑤ 반명함판 사진 2매
- ⑥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⑦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⑧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3.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① 원서교부 : 2016년 12월 5일(월) ~ 2017년 2월 10일(금)
- ② 원서교부처 : 본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http://agpgs.aogk.org>)
- ③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 ~ 2017년 2월 17일(금)
- ④ 접수방법 : E-mail 혹은 우편이나 방문접수(luvjx7@daum.net)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형료 : 50,000원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교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② 본 교단 소속 목사 중 목회학 석사(M.M)학위를 취득코자하는 자에게는 50% 장학금 혜택을 부여한다.
- ③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오전9:30분~ 오후 4:40분 까지 진행된다.
- ④ 접수원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면 합격을 하였던더라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2017년 2월 17일(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

홈페이지 : www.agtc.or.kr

2017학년도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신·편입생 모집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학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 설립취지

본 신학교는 신실한 사명자들을 성경적 신앙의 바탕 위에서 가르치고 훈련시켜서 거룩한 성품과 오순절 신학을 겸비하여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명자들을 배출함으로 한국과 세계복음화에 헌신할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교육목표

- ① 성경적 오순절 신학의 연구와 정립
- ② 거룩한 성품과 성령의 능력이 겸비된 일꾼 양성
- ③ 건강한 교회를 세울 참신한 지도자 양성

● 교훈

- 자질을 갖춘 소명자
- 진리충만 은혜충만한 소명자
- 복음전파에 목숨을 건 소명자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4년8학기 (140학점)	-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포함) -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고졸 이상의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은 자
신학과 (편입생)		4년제 대학졸업자 : 3학년에 편입 - 전문대 졸업자 : 2학년에 편입 -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할 경우 해당 학년 편입

2. 제출서류(각 1통)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 ③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④ 건강진단서(HIV포함)
- ⑤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자)
- ⑥ 가족관계증명서
- ⑦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 ⑧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⑨ 담임목사 추천서

3.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① 원서교부 : 2016년 12월 5일(월)~2017년 2월 10일(금)
- ②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2017년 2월 17일(금)
- ③ 면접시험 : 2017년 2월 20일(월) 오후 1시
- ④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총회신학교 교학처)

4. 전형료 및 입금계좌

- ① 전 형 료 : 30,000원(계좌로 입금)
- ② 계좌번호 : 농협 302-0928-2133-91(예금주 임종달)

5. 특전 및 기타사항

- ① 졸업 후 본 교단 전도사 임명자격을 부여한다.
- ② 총회목회대학원 입학자격을 부여한다.
- ③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신학교 교학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학상담 및 문의

교학처 : 02)2677-0692

- 원서접수 : 2017년 2월 6일(월)~2017년 2월 17일(금)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학처 02)2677-0692